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금리 상승, 대형 기술주 동반 급락 등으로 하락

미국 증시 리뷰

23일(수) 미국 증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 급등, 엔비디아, 애플 등 대형 기술주의 동반 급락 영향으로 3대 지수는 하락(다우 -0.96%, S&P500 -0.92%, 나스닥 -1.60%)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4.25% → 3.75%로 0.5%p 인하, 올해 들어 4번째 금리 인하 단행. 지난 달 캐나다의 CPI는 정체된 성장으로 인해 1.6%를 기록하며 중앙은행 목표치를 하회,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 수준. 금번 빅컷(50bp 금리 인하)의 배경에는 석유산업 투자 부진 및 저조한 수출로 인해 캐나다의 성장성 둔화 우려가 제기는 가운데 당국의 경기 부양성 통화 완화 정책으로 풀이.

전미부동산협회(NAR)에서 발표한 9월 미국 기존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1.0% 감소한 연율 384만 채 기록하며 컨센서스(390만 채) 하회. 2010년 10월 이후 최저치 수준. 기존주택 판매는 지난 7월 5달 만에 처음 증가세로 전환하였다고 이후 8월부터 재차 감소세. 9월 기준 주택 중간 가격은 전년대비 3.0% 상승한 40.4만 달러 기록, 연간 기준 15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한편, 미국 모기지금리는 최근 견조한 경제 지표 및 미 연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후퇴하며 6.4%대로 상승

미 재무부는 13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미국채가가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에서 낙찰되었다고 발표. 이날 입찰에서 20년물 국채 발행 수익률은 지난달 입찰 때의 4.039%보다 상승한 4.590%로 결정, 지난 5월 이후 최고치. 한편, 응찰률은 2.59배로 지난 달 2.51배에서 소폭 증가.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엔비디아(-2.81%), 애플(-2.16%), 마이크로소프트(-0.68%), 메타(-3.15%), 아마존(-2.64%), 알파벳(-1.43%), 테슬라(-1.98%) 하락하며 전체 M7 종목 하락. 다만, 테슬라는 3분기 순이익 및 마진율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영향으로 장 마감후 11%대 강세를 시현. 특징주로는 태양광 관련주인 인페이즈 에너지(-14.9%)가 부진한 실적발표로 인해 급락하며 관련주인 퍼스트솔라(-4.5%)도 하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 9월 중순 3.65%까지 하락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어느덧 4.25%선까지 급등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미국 시장 금리가 급등한 이유는 1) 견조한 경기지표로 인한 미 연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후퇴, 2)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상승한 가운데 감세,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금리 상승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

특히 전일 공개된 연준의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활동은 “지난 9월 초 이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변화가 없었고, 2개 지역에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루어졌다”고 언급.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활동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인플레이션 완화, 고용 증가는 장기 전망의 낙관론을 지지하는 요인.

이처럼, 최근 고용보고서, 소매판매 등 실물지표 호조세와 연준의 긍정적인 경기 전망이 시장 금리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빅컷(50bp 인하)을 단행한 점이 추가적인 금리 상승을 이끌. 단기적인 시장 금리 방향성의 분기점이 될 이벤트는 11월 초에 있을 고용보고서와 미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남은 기간은 시장 금리 등락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할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테슬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낙폭과대 인식 속 반도체와 2차전지 대형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된 영향으로 양 지수는 상승 (코스피 + 1.12%, 코스닥 +0.93%)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미 증시에서의 금리 상승, 엔비디아 및 애플 등 대형 기술주의 조정을 소화하며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 다만, 장 마감후 발표된 테슬라 어닝서프라이즈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발표에 영향을 받아 관련 업종 대형주의 주가 흐름이 지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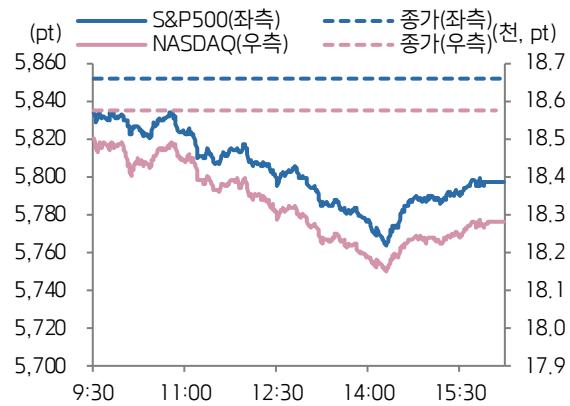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의 낙폭 과대성 기술적 반등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여전히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의 대형주를 동시다발적으로 견인할 유동성 유입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20일 평균 거래대금 기준, 코스피 10조원, 코스닥 6.3조원). 특히,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승한 가운데 달러 강세가 촉발한 원/달러 환율 상승, 미 국채 금리 상승의 조합은 증시의 상승 탄력을 제한하는 부분. 여기에 지난 21일에 발표된 국내 수출이 전년 대비 2.9% 하락하며 수출주의 실적 둔화 우려도 가중. 다만, 밸류에이션상 지수의 하방경직성은 일정

부분 확보했다는 점을 감안시 코스피는 미 대선 전까지 2,600선 위아래로 좁은 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결국,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일에는 2차전지와 반도체가 지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은 EPS가 0.72달러를 기록하며 컨센서스(0.60달러)를 상회하며 어닝서프라이즈 시현. 특히, 마진율이 당초 예상치인 16.8%를 크게 상회한 19.8% 기록한 점, 이후 컨퍼런스콜에서 로보택시 및 FSD 관련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테슬라는 애프터 마켓에서 11%대 주가 급등. 이를 감안시 전일 선제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던 국내 2차전지주들의 추가 랠리 여부에 주목해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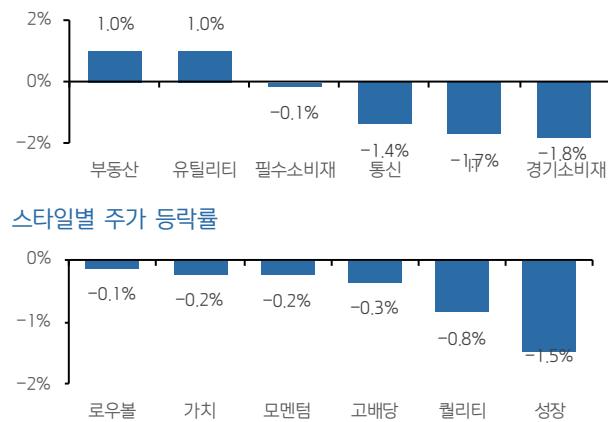
한편, 전일 반도체 특별법 발의안,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 선제 매수세가 유입된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지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 특히, 전일 31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들어 매도 강도는 크게 악화되고 있는 모습. 금일 SK하이닉스 실적 및 가이던스가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지 여부에 주목해볼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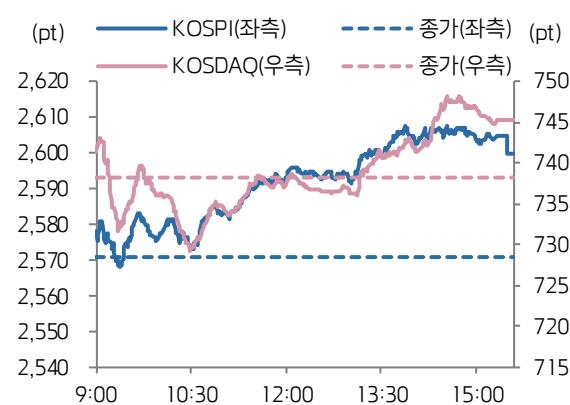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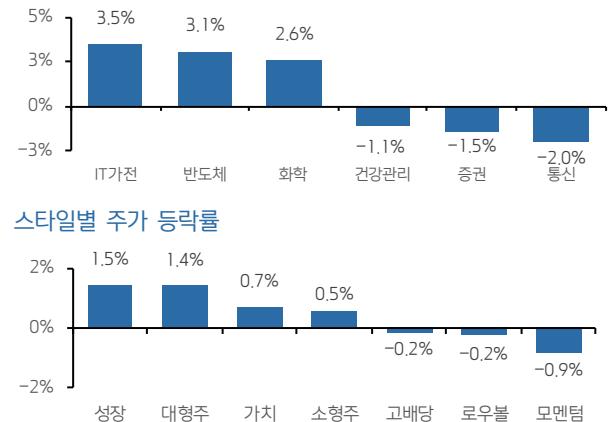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30.76	-2.16%	+20.31%	GM	52.92	-1.51%	+48.52%
마이크로소프트	424.60	-0.68%	+13.53%	일라이릴리	903.25	-0.65%	+55.71%
알파벳	162.78	-1.43%	+16.82%	월마트	83.27	+1.52%	+60%
메타	563.69	-3.15%	+59.73%	JP모건	223.41	-0.32%	+34.48%
아마존	184.71	-2.63%	+21.57%	엑손모빌	120.27	-0.36%	+23.38%
테슬라	213.65	-1.98%	-14.02%	세브론	150.48	-0.29%	+4.17%
엔비디아	139.56	-2.81%	+181.87%	제너럴일렉트릭	83.27	+1.5%	+60%
브로드컴	173.51	-3.27%	+57.11%	캐터필러	385.73	-0.7%	+32.55%
AMD	152.91	-0.77%	+3.73%	보잉	157.06	-1.76%	-39.75%
마이크론	105.05	-2.57%	+23.46%	넥스트에라	84.96	+1.5%	+4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99.62	+1.12%	-2.1%	USD/KRW	1,381.60	+0.14%	+7.27%
코스피200	346.27	+1.22%	-3.27%	달러 지수	104.41	+0.32%	+3.04%
코스닥	745.19	+0.93%	-14.01%	EUR/USD	1.08	-0.16%	-2.33%
코스닥150	1,266.76	+1.38%	-9.09%	USD/CNH	7.14	+0%	+0.14%
S&P500	5,797.42	-0.92%	+21.54%	USD/JPY	152.76	+1.11%	+8.31%
NASDAQ	18,276.65	-1.6%	+21.75%	채권시장		가격	DTD(bp)
다우	42,514.95	-0.96%	+12.8%	국고채 3년	2.932	-1bp	-21.3bp
VIX	19.24	+5.71%	+54.54%	국고채 10년	3.127	+0bp	-4.8bp
러셀2000	2,213.84	-0.79%	+9.21%	미국 국채 2년	4.078	+4.5bp	-17.2bp
필라. 반도체	5,131.37	-1.14%	+22.89%	미국 국채 10년	4.246	+3.8bp	+36.6bp
다우 운송	16,087.50	-1%	+1.19%	미국 국채 30년	4.518	+2.2bp	+49bp
상해종합	3,302.80	+0.52%	+11.02%	독일 국채 10년	2.304	-1.4bp	+28bp
항셍 H	7,478.23	+1.56%	+29.64%	원자재 시장		가격	DTD(%)
인도 SENSEX	80,081.98	-0.17%	+10.86%	WTI	70.77	-1.35%	+0.67%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4.96	-1.42%
Eurostoxx50	4,922.55	-0.34%	+8.87%	금	2,729.40	-1.1%	+26.36%
MSCI 전세계 지수	851.27	-0.27%	+17.09%	은	33.84	-3.43%	+40.49%
MSCI DM 지수	3,731.32	-0.24%	+17.74%	구리	433.65	-1%	+11.46%
MSCI EM 지수	1,142.19	-0.54%	+11.57%	BDI	1,480.00	-4.27%	-29.32%
MSCI 한국 ETF	61.22	+0.56%	-6.58%	옥수수	419.00	+0.6%	-16.78%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78.50	+0.43%
비트코인	66,586.37	-1.35%	+56.64%	대두	1,005.00	+0.45%	-19.78%
이더리움	2,512.55	-4.57%	+10.09%	커피	252.35	+1%	+34.0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2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